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lay Characteristics, Interactive Peer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According to Teacher’s Evaluatio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lay characteristics, interactive peer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consisted of 235 3- to 5-year-old children resident in Gyeonggi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statistical softw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lay characteristics, interactive peer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Second, in terms of the degree of play characteristics in evidence, interactive peer play appears to be a reliable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behavior.

Key Words: 놀이특성(play characteristics), 상호작용적 또래놀이(interactive peer play), 유아 행동(young children’s behavior), 교사평가(teacher’s evaluation).

I. 서 론

유아들의 일상생활은 놀이로 이루어진다. 유아
의 이러한 놀이의 영역들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은 ‘놀이’라는 것(Van Hoon, Nourot, Scales,
& Alward, 2003)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유아
의 놀이 행동은 인간의 여러 측면이 통합되어 나
타나므로 유아 중심의 놀이는 유아의 통합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박유영·이수기·윤현숙·
홍혜경, 2007).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적 상
호작용을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의 다른 관점들
인식하고 자신을 탈종심화하고 마음이론을 발달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Yoon-Se Hwa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53 Gydong Samcheok-si Gangwon-do 245-711, Korea E-mail: yahwang@kangwon.ac.kr

- 135 -
시키고 되므로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Fromberg, 2002). 또한 유아의 놀이경험은 예측 능력, 언어발달과 인지발달(Pellegrini & Galda, 1982), 지각능력을 발달(음예회, 2004)시킨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놀이와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이는 유아교육 분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실제에서 모든 교수·학습활동은 놀이를 통해서 혹은 놀이의 특성을 지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아교육 실제에서 유아들의 놀리는 자유놀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민첩하게 일어나는데,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과 Debnam(1995)은 자유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호작용적 또래놀이(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IPPS)를 개발하였다. PIPPS는 교사용 척도로 놀이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단절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놀이상호작용은 정성·공유한, 다른 유아 돕기, 격려하기, 칭찬·대화 등과 관련된 공간적 차원이고, 놀이방해는 싸움, 교란, 불평,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차원이며, 놀이단절은 배와, 놀이질색, 두사 동 위촉행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부정적 차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 구성요인들은 유아의 자유놀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유형이다.


유아의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는 문제 행동의 개념만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Behar과 Stringfield가 만 3세에서 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도구에서는 공격성, 불안, 과행동성 및 산만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유아의 행동 혹은 부정적 행동들은 공격성, 불안, 과행동 및 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 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그리고 유아의 행동 특성은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 평가는 최근 유아 평가의 경향으로 “다양한 측정 방법” 혹은 “창(window)”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McAfee & Loeng, 2007). 교사는 관찰만으로 유아들의 행동 결과를만으로 또는 다른 하나의 평가 자료만으로는 신뢰롭고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많은 차원의 조합을 통해 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사용 평정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즉 유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진 자원은 교사와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유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놀이 혹은 다른 발달 영역의 정론적 지식이 없으므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유아에 대해 정서적으로 긴게 개인되어 있으며, 또래의 다른 유아에 대한 경험의 폭이 크지 않으므로 교사의 평가에 비해 덜 신뢰
놀이특성 및 상호작용적 놀이놀이가 유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3


특히 이러한 변인들은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므로 유아의 늙어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놀이 특성과 상호작용적 놀이놀이의 ‘놀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점에서 그 변인들이 중복되며, 유아 교육의 실제에서 늙어는 중요한 교수 메커니즘 인 동시에 유아들의 일상이다. 놀이특성은 늙어의 영역을 발휘하는 변인이며, 상호작용적 놀이놀이 늙어의 늙어에서의 대인관계를 계선하는 변인이다. 그러므로 늙어와 관련된 두 변인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작업은 유아들의 늙어활동에 중요한 심도깊은 분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늙어활동과 유아의 행동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늙어 중심의 유아교육에 보다 의미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발휘함으로 유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의 늙어 특성, 상호작용적 놀이 늙어, 그리고 유아의 행동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의 늙어 특성과 상호작용적 놀이놀이는 유아의 행동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강원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이증 만 3, 4, 5세 유아 25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56명의 연구대상 중 질문지 수집이 어려웠거나, 응답 자료가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5(남 : 123, 여아 : 112)명의 유아와 담임교사 1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유아는 3세 85명, 4세 78명, 5세 72명 이었다. 평균 나이는 68.03세이다. 대상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2곳, 어린이집 3곳 이었다. 담임교사의 특성은 4년제(11명), 대학원(2명)을 졸업하였으며, 평균경력은 3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늙어특성

유아의 늙어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2007)가 제작한 ‘유아놀이적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가 하루일과 동안 유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평가 내용과 관련된 늙어특성 을 평정하는 척도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인 1 점부터 ‘매우 그렇다’인 5점까지 평가 척도이며, 운동놀이가 9문항, 언어놀이가 8문항, 인지놀이가 8문항, 정서놀이가 8문항, 사회놀이가 8문항, 비놀이가 4문항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하위 영역별로 인지놀이 .88, 언어놀이 .88, 사회놀이 .88, 정서놀이 .88, 운동놀이 .88 도구전체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놀이적도’의 총점은 비놀이를 제외한 5 개 영역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비놀이 만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비놀이를 포함할 경우에
는 비늘이 부분을 연장하여 접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놀이특성 범주의 아닌 비늘이는 제외하고 5개영역만을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하위요인별 놀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동놀이는 놀이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신체움직이 뛰어난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놀이는 놀이에서 단이나 이원을 사용하여 놀이상황과 능력발달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여 대화하는 능력이다. 인지놀이는 유아들이 놀이감과 놀이상황을 탐색하고 놀이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정서놀이는 유아들이 놀이를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내용과 태도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다. 사회놀이는 유아들이 놀이감을 공유하고 교환하며 또래와의 놀이에서 필요한 규칙을 지켜 놀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능력을 필요하다.

2) 상호작용적 도래놀이
상호작용적 도래놀이는 Fantuzzo 등(Fantuzzo et al., 1995)이 개발한 상호작용적 도래놀이성척도(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IPP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 영역은 놀이상호작용(7문항), 놀이방해(10문항), 그리고 놀이단절(1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의 4단계 교사용 평정척도이다. 놀이상호작용은 상호공유하기, 다른 유아 동기, 견디기, 창의성 등과 관련된 척도적 차원이고, 놀이방해는 사 용, 고아질, 불평,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같은 부정적 차원이며, 놀이단절은 배저, 놀이게절, 무시 등 위축행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부정적 차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는 놀이상호작용 .90, 놀이방해 .89, 놀이단절 .92로 나타났다.

3) 유아 행동 특성
유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ehar과 Stringfield가 만 3-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검 사하기 위해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aire를 김혜수(1995)가 수정, 보완한 질문지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공격성, 불안, 과활동성 및 산만성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의 전체 문항은 24문항으로 공격성 19문항, 불안 9문항, 과활동성 및 산만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특성 행동 유저별로서 어느 정도의 범도를 나타나는 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의 행동에 관한 질문지로서 높은 점수를 얻은 유아일수록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a)를 살펴보면 하위영역에서는 .80~.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전체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1주부터 11월 1주까지 약 5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3회에 걸쳐 유아의 놀이 특성, 상호작용적 도래놀이 그리고 유아 행동특성에 대한 질문지를 숙지하고 각 문항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보조원들이 연구대상 유아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각각 담임교사에게 질문지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조정과정을 거쳤다.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각 평정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당 학급에
숙한 유아들의 유아의 놀이 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그리고 유아행동특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에게 최근 2개월 동안의 유아 교육기관에서 유아의 평균적인 일상 행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과정 중의 문제점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과 수시로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교사 사전 교육 후 교사들간의 일치도를 계산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니면서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는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교사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일치도를 구하였다. 유아의 놀이 특성의 경우 91,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93 그리고 유아행동특성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처리 방향으로는 각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값을 구하였으며, 관련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후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놀이특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행동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놀이특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가 갖는 유아행동 특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WIN. 13.0으로 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놀이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그리고 행동특성 간의 상관관계

다음의 표 1에서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놀이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그리고 행동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행동특성은 놀이특성 전체 및 그 하위요인 그리고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특성은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인 놀이방해와 놀이간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1) 유아 놀이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및 행동특성 간의 상관관계 (N = 235)

<table>
<thead>
<tr>
<th></th>
<th>A</th>
<th>B</th>
<th>C</th>
</tr>
</thead>
<tbody>
<tr>
<td>A</td>
<td></td>
<td></td>
<td></td>
</tr>
<tr>
<td>A-a</td>
<td>1</td>
<td></td>
<td></td>
</tr>
<tr>
<td>A-b</td>
<td>.579</td>
<td>1</td>
<td></td>
</tr>
<tr>
<td>A-c</td>
<td>.667</td>
<td>(**)</td>
<td>1</td>
</tr>
<tr>
<td>A-d</td>
<td>.503</td>
<td>(**)</td>
<td></td>
</tr>
<tr>
<td>A-e</td>
<td>.484</td>
<td>(**)</td>
<td></td>
</tr>
<tr>
<td>A-f</td>
<td>.579</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表 1

<table>
<thead>
<tr>
<th></th>
<th>A-a</th>
<th>A-b</th>
<th>A-c</th>
<th>A-d</th>
<th>A-e</th>
<th>A-f</th>
<th>B-a</th>
<th>B-b</th>
<th>B-c</th>
<th>B-d</th>
<th>C-a</th>
<th>C-b</th>
<th>C-c</th>
<th>C-d</th>
</tr>
</thead>
<tbody>
<tr>
<td></td>
<td>.334</td>
<td>.461</td>
<td>.302</td>
<td>.470</td>
<td>.400</td>
<td>.472</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a</td>
<td>.089</td>
<td>-.178</td>
<td>-.220</td>
<td>-.422</td>
<td>-.238</td>
<td>-.268</td>
<td>-.24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b</td>
<td>-.274</td>
<td>-.283</td>
<td>-.242</td>
<td>-.338</td>
<td>-.381</td>
<td>-.363</td>
<td>-.354</td>
<td>.146</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c</td>
<td>-.241</td>
<td>-.305</td>
<td>-.383</td>
<td>-.568</td>
<td>-.398</td>
<td>-.448</td>
<td>-.341</td>
<td>.781</td>
<td>.345</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C-a</td>
<td>-.409</td>
<td>-.359</td>
<td>-.429</td>
<td>-.469</td>
<td>-.436</td>
<td>-.507</td>
<td>-.381</td>
<td>.424</td>
<td>.524</td>
<td>-.647</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C-b</td>
<td>-.470</td>
<td>-.505</td>
<td>-.480</td>
<td>-.562</td>
<td>-.564</td>
<td>-.620</td>
<td>-.427</td>
<td>.427</td>
<td>.500</td>
<td>.642</td>
<td>.773</td>
<td>1</td>
<td></td>
<td></td>
</tr>
<tr>
<td>C-c</td>
<td>-.375</td>
<td>-.402</td>
<td>-.465</td>
<td>-.601</td>
<td>-.493</td>
<td>-.558</td>
<td>-.414</td>
<td>.679</td>
<td>.480</td>
<td>.925</td>
<td>.871</td>
<td>.839</td>
<td>1</td>
<td></td>
</tr>
<tr>
<td>C-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5 ** p < .01

2. 놀이특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2는 유아 행동 특성 전체에 대한 관련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특성 특성의 놀이방해(F = 199.263, p < .001)가 45.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놀이단절(F = 181.056, p < .001)가 14.7%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60.6%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리고 놀이특성의 인지능력(F = 156.247, p < .001)가 6.0%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66.6%의 설명력을 가지며, 운동능력(F = 100.062, p < .001)가 13.9%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77.9%의 설명력을 가지며, 정서능력(F = 102.903, p < .001)가 0.6%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80.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유아의 행동특성이 공격성, 불안, 과일행동 및 산만이라는 부정적인 행동 특성으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능력과 운동능력, 그리고 정서는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에 대한 놀이방해(F = 364.221, p < .001)가 60.8%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 며, 정서능력(F = 245.387, p < .001)가 6.8%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67.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놀이단절(F = 43.637, p < .001)가 2.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70.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정서는 유아의 부정적인
해당 관련변인의 영향력

<table>
<thead>
<tr>
<th>종속 변수</th>
<th>단계</th>
<th>독립변인</th>
<th>$B$</th>
<th>$\beta$</th>
<th>$t$</th>
<th>$F$</th>
<th>$R^2$</th>
<th>$\Delta R^2$</th>
</tr>
</thead>
<tbody>
<tr>
<td></td>
<td>1</td>
<td>성수</td>
<td>26.147</td>
<td>.679</td>
<td>20.486***</td>
<td>199.263***</td>
<td>.459</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하며</td>
<td>1.45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td>
<td>성수</td>
<td>22.747</td>
<td>.622</td>
<td>19.826***</td>
<td>181.056***</td>
<td>.606</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하며</td>
<td>1.33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단절</td>
<td>1.190</td>
<td>.390</td>
<td>9.394***</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3</td>
<td>성수</td>
<td>46.609</td>
<td>.573</td>
<td>12.200***</td>
<td>156.247***</td>
<td>.666</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하며</td>
<td>2.27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단절</td>
<td>1.021</td>
<td>.334</td>
<td>8.538***</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지놀이</td>
<td>-.751</td>
<td>-.258</td>
<td>-6.50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4</td>
<td>성수</td>
<td>52.666</td>
<td>.579</td>
<td>15.159***</td>
<td>124.725***</td>
<td>.679</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하며</td>
<td>1.23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단절</td>
<td>.949</td>
<td>.311</td>
<td>7.963***</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지놀이</td>
<td>-.563</td>
<td>-.191</td>
<td>-4.439***</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운동놀이</td>
<td>-.316</td>
<td>-.142</td>
<td>-3.26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td>
<td>성수</td>
<td>57.306</td>
<td>.542</td>
<td>13.233***</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하며</td>
<td>1.15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놈야단절</td>
<td>.896</td>
<td>.293</td>
<td>7.458***</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지놀이</td>
<td>-.380</td>
<td>-.129</td>
<td>-2.537*</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운동놀이</td>
<td>-.261</td>
<td>-.118</td>
<td>-2.654*</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정서놀이</td>
<td>-.381</td>
<td>-.132</td>
<td>-2.369*</td>
<td>102.903***</td>
<td>.685</td>
<td></td>
</tr>
</tbody>
</table>

$p < .05. \ **p < .01. \ ***p < .001.$

행동특성의 공격성에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놈야단절, 놈야반해, 운동놀이, 인지놀이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에 대해 놈야단절($F = 88.187$, *.rium 141 *)
표 4 몸언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table>
<thead>
<tr>
<th>중속 변수</th>
<th>단계</th>
<th>독립변인</th>
<th>B</th>
<th>β</th>
<th>t</th>
<th>F</th>
<th>R²</th>
<th>ΔR²</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상수</td>
<td></td>
<td>13.281</td>
<td>.544</td>
<td>.524</td>
<td>38.594***</td>
<td>88.147***</td>
<td>.271</td>
</tr>
<tr>
<td></td>
<td>늘어달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상수</td>
<td></td>
<td>10.745</td>
<td>.490</td>
<td>.472</td>
<td>22.198***</td>
<td>76.592***</td>
<td>.392</td>
</tr>
<tr>
<td></td>
<td>늘어달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늘어방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상수</td>
<td></td>
<td>18.620</td>
<td>.416</td>
<td>.401</td>
<td>12.107***</td>
<td>66.762***</td>
<td>.457</td>
</tr>
<tr>
<td></td>
<td>늘어달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늘어방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운동능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인지능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td>
<td>상수</td>
<td></td>
<td>21.675</td>
<td>.400</td>
<td>.385</td>
<td>11.953***</td>
<td>54.189***</td>
<td>.476</td>
</tr>
<tr>
<td></td>
<td>늘어달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늘어방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운동능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인지능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 .05, **p < .01, ***p < .001.

$p < .001$이 12.1%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늘어방해($F = 76.592$, $p < .001$)가 12.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39.2%의 설명력을, 운동능력($F = 66.762$, $p < .001$)가 6.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45.7%의 설명력을, 그 다음으로 인지 능력($F = 54.189$, $p < .001$)가 1.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47.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유아의 정성적인 행동특성인 몸언에 대해 운동 능력과 인지능력의 응의 영향을 나타냈다.

다음의 표 5는 유아 행동특성 중 파업행동 및 산만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능력, 늘어달릴, 늘어방해, 운동능력, 그리고 인지능력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행동 및 산만에 대해, 사회능력($F = 108.805$, $p < .001$)이 31.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늘어달릴($F = 81.815$, $p < .001$)가 9.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40.9%의 설명력을 가지며, 늘어방해($F = 75.035$, $p < .001$)가 7.8%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48.7%의 설명력을 가지며, 운동능력($F = 63.222$, $p < .001$)가 2.8%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52.4%의 설명력을 가지며, 인지능력($F = 53.180$, $p < .001$)가 1.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총 5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특히 사회능력, 운동능력, 인지능력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인 파업행동 및 산만에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능력 특성, 상호작용적 동아동되고, 그리고 행동 특성 간의 상관관계와 능력특성과 상호작용적 동동이의 각 하위 구성 요소들이 행동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행동특성 전체 및 그 하위요인(공격, 파업행동 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유아의 행동특성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능력, 운동능력, 인지능력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인 파업행동 및 산만에 음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더 정교한 이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능력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능력, 운동능력, 인지능력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운동 능력, 인지 능력이 서로 연관되어 동일한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더 정교한 이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행동특성의 이해와 개선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능력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유아의 행동특성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더 정교한 이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정된 대상 집단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행동특성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thead>
<tr>
<th>종속 변수</th>
<th>단계</th>
<th>독립변인</th>
<th>B</th>
<th>( \beta )</th>
<th>t</th>
<th>F</th>
<th>( R^2 )</th>
<th>( \Delta R^2 )</th>
</tr>
</thead>
<tbody>
<tr>
<td></td>
<td>1</td>
<td>상수</td>
<td>19.367</td>
<td>-387</td>
<td>17.985***</td>
<td>108.805***</td>
<td>.315</td>
<td></td>
</tr>
<tr>
<td></td>
<td></td>
<td>사회활동</td>
<td>-387</td>
<td>-564</td>
<td>-10.431***</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td>
<td>상수</td>
<td>16.018</td>
<td>-300</td>
<td>14.051***</td>
<td>81.815***</td>
<td>.409</td>
<td>.094</td>
</tr>
<tr>
<td></td>
<td></td>
<td>사회활동</td>
<td>-300</td>
<td>-437</td>
<td>-8.04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활동</td>
<td>.214</td>
<td>.334</td>
<td>6.139*</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3</td>
<td>상수</td>
<td>13.440</td>
<td>-257</td>
<td>11.746***</td>
<td>75.035***</td>
<td>.487</td>
<td>.078</td>
</tr>
<tr>
<td></td>
<td></td>
<td>사회활동</td>
<td>-257</td>
<td>-375</td>
<td>-7.255***</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활동</td>
<td>.202</td>
<td>.315</td>
<td>6.21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방배</td>
<td>.131</td>
<td>.292</td>
<td>6.038***</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4</td>
<td>상수</td>
<td>14.714</td>
<td>-174</td>
<td>12.673***</td>
<td>63.222***</td>
<td>.515</td>
<td></td>
</tr>
<tr>
<td></td>
<td></td>
<td>사회활동</td>
<td>-174</td>
<td>-254</td>
<td>-4.266***</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활동</td>
<td>.193</td>
<td>.301</td>
<td>6.086***</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방배</td>
<td>.137</td>
<td>.303</td>
<td>6.45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운동활동</td>
<td>-.100</td>
<td>-.214</td>
<td>-3.817***</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td>
<td>상수</td>
<td>15.416</td>
<td>-131</td>
<td>13.072*</td>
<td>53.130***</td>
<td>.527</td>
<td>.012</td>
</tr>
<tr>
<td></td>
<td></td>
<td>사회활동</td>
<td>-131</td>
<td>-191</td>
<td>-3.01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활동</td>
<td>.190</td>
<td>.296</td>
<td>6.05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놀이방배</td>
<td>.133</td>
<td>.296</td>
<td>6.35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운동활동</td>
<td>-.075</td>
<td>-.161</td>
<td>-2.73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인지활동</td>
<td>-.093</td>
<td>-.157</td>
<td>-2.569*</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5, \text{**} p < .01, \text{***} p < .001. \)

성, 불안, 과정행동 및 산만들은 놀이특성의 모든 하위 구성요소,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 구성요소인 놀이상호작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행동 특성 및 그 하위요인들은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인인 놀이방배와 놀이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직 상관관계가 있었다.

놀이의 백락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 볼 때,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은 유아의 놀이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과정적인 놀이 백락과는 부정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놀이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각 하위변인들이 유아의 행동 특성 및 그 하위요인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행동 특성 전체에는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인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놀이특성의 하위요인인 인지능력, 운동능력, 정서능력이 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행동 특성의 하위요인인 공격성에 대해서는 놀이방해, 놀이단절 그리고 정서능력가 운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블루요인에 대해서는 놀이단절, 놀이방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은 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행동 및 산만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놀이, 운동능력, 인지능력과 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단절 및 놀이 방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서는 놀이특성을 주로 운의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부정적인 요인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이 유아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안호진, 임 연진, 2010)에서 는 놀이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인 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특히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은 유아의 행동특성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놀이특성 중 운동 능력은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 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상반성에 대해, 이희선(1994)은 유아의 활동성이 높으면서, 교사들은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이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유아도 신체적 자발성 혹은 운동 능력이 경향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유아의 미숙한 대근육 혹은 소근육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부정적인 행동 특성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소(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중 부정적인 백락방해와 놀이단절은 유아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유아의 행동 특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없지만, 상호작용적 놀이의 능이상호작용은 놀이성과 관련이 있으며(Barkham, 2004), 유아의 능이상호작용은 또래동정성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인 것으로 선행연구(김수영, 2000)에서 보고하였다. 이러한 놀이백락에서 놀이방해와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놀이 백락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특성,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및 행동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놀이 특성은 유아의 행동 특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놀이 악영향의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이 유아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놀이 활동이 행동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행동 특성 혹은 놀이 관련 변인에 대해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에 대해 놀이 특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는 한정된 놀이 개념 및 놀이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최근의 놀이 연구 동향은 특정한 놀이 형태가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는 유아들의 개인적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체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이외에 다양한 방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두 교사 평정적 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유아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평가가 가능하며 다양한 영역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수렴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평가 혹은 교사평정 역시 제한적이며,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상황의 고려를 바탕한 관찰에 근거한 연구와 더불어 교사평정적도가 갖는 문제의 해결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안효진, 민인진(2010). 유아의 능력성, 행동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